

데스크시각



장필수 편집부국장·제2사회부장

요즘 많긴 적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이고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연 1% 안팎으로 사실상 '제로금리'이기 때문이다. 이제 전통적인 투자법으로는 더 이상 자산을 늘릴 수가 없는 시대다.

'동학 개미 운동'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 주식시장으로 달려든 것도, 저금리 시대 적당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탓이 크다. 시중에 돈은 넘쳐 나는데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 보니 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곳으로 돈이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조금만 투자자가 '을'이 되고 자금을 운용하는 측은 '갑'이 되는 구조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는 라임사태도 이런 상황에서 빚어진 사기 사건이다. 사모펀드 1위인 라임자산운용은 시

조급한 투자자가 '을'이 된다

중 금리가 연 1~2%일 때 5~8%의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급성장했다.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니 뒷사람의 투자금으로 앞사람의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돌리막기식 운영이었다. 라임은 결국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했다. 그 피해액만 1조 7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임사태는 주범 김봉현을 비롯해 광주 출신 인사들이 정·관계 로비를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지역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잇단 사기 사건 피해 '붐몰'

유평머슴펀드도 마찬가지였다. 6개월 만에 3% 안팎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5000억 원의 돈이 몰렸는데 2주전부터 펀드 환매가 중단됐다. 유평머슴자산운용은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펀드를 판매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업체의 사채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저금리 시대 투자 사기는 우리 지역에서 수도 발생했다. 어느 50대 여성 사업가가 자산가들을 상대로 벌인 200억 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을 벌인 것이다. 이 또한 피해자들이 더 높은 수익을 쫓다 빚어진 사건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 50대

여성 사업가는 그동안 친분을 쌓은 건설사 회장과 대학교수 그리고 의사 등에게 아파트·오피스텔·레저 시설 등에 투자하라며 돈을 받아 잠적했다고 한다.

광주 지산동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이중 분양 사기의 경우 피해자들이 대부분 영세한 서민들이다.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는 피해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고 속인 뒤 아파트 한 채당 최대 4명까지 중복 계약을 했다. 대행사 관계자들은 한 사람당 3000만 원에서 9000만 원까지 자신들의 계좌로 돈을 받아 챙겼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117명에 피해액은 70억 원에 이른다.

지산동 이중 분양 사기는 피해자들이 조금만 꼼꼼하게 확인했다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합원 자격을 얻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수천만 원씩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업무 대행사의 말만 믿고 조합원 자격 여부와 입금 계좌 등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사기 피해는 투자자들의 욕심과 사기 범들의 계획적이고 교묘한 수법이 맞아 떨어질 때 흔히 발생한다. 그렇다고 투자자들의 욕심만 탓할 수는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 당국과 자치단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다. 라임이나 유평머

슴 같은 운용사가 어디에다 투자하는지, 펀드를 판매하는 은행이나 증권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았다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하지만 판매사들은 수수료 챙기기에만 비뻤다.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예탁결제원은 이상 징후를 발견했지만 방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고수익 과도한 욕심 버려야

광주아파트 이중 분양 사기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자치단체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사이, 업무 대행사가 홍보관을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운영해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갔다. 현장 점검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저금리를 넘어 제로 금리 시대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자산을 불리거나 최소한 손실을 입지 않으려면 투자자 스스로 시장을 읽는 혜안을 키워야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과도한 욕심을 버려야 한다. 관계 기관은 현미경 같은 관찰로 투자자들이 고수익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 위험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키는 것도 관계 당국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bungy@kwangju.co.kr

은펜칼럼

컨설팅 활동을 통해 배운 것 세 가지



이병우 단국대 교양대학 외래교수

사업하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중 컨설팅에 대해 이런 말을 나누었다. 지인으로부터 경영 지도사를 만나 보라는 거듭된 추천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매우 실망했다는 것이다. 책에 나올 법한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해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영 지도사의 컨설팅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현직에서 물러난 숙련된 경력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분야 중의 하나가 컨설팅이나 멘토링 같은 자문 활동이다. 숙련된 경험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중엔 역량은 충분하는데 이걸

잘 풀지 못한 경우가 의외로 많다. 그동안 컨설팅 활동을 하면서 배운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 보고자 한다. 손자와 한비자, 소크라테스에게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지피지기를 하기 전에 제안을 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유명한 말,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컨설팅 이야기,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해서 다시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경영 지도사의 컨설팅에 대해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그 회사 현황과 대표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안을 하겠는가?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블리 말을 하면 현실도 모른 채 이론만 떠돈다고 핀잔맞기 십상이다. 미리 그 회사에 대해 알아보고 처음 만나서는 자신의 정보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아야 컨설팅을 할 수 있다. 둘째, CEO의 숨은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이거야말로 중요한 사안이지만 쉽지 않다. 한비자의 세난(說難)편에 참고가 될 만한 구절이 있다. "무릇 유세(遊說)의 어려움이란, 나의 지식이 부족하여 상대를 설득하기 어려운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유세의 어려움은, 상대방의 마음속을 잘 살펴서 그 심의(心意)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서, 나의 주장을 거기에 적중시켜야 하는 데 있다."

한비자는 군주가 겉으로 명성을 내세우나 실제로 실리를 중시하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가 아닌지 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숨어 있는 니즈를 파악해야 한다. 실로 인간 심리의 맨바닥을 꿰뚫어 본 통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군주와 CEO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세계과 컨설턴트라는 입장은 대동소이하다.

셋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소크라테스 문답법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한다.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통해서 상대가 답을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답이 아니라 질문을 하면 스스로 방안을 생각하게 하고 이런 과정

을 통해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아우리가 형성되기 전에 제안부터 하게 되면 되려 공격받게 된다.

미션이나 비전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될까? 무엇을 하고(know what) 어떻게 하는지(know how)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일을 하는지(know why)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경영자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만의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CEO는 그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한다.

에릭 슈미트가 구글 CEO로 취임해서 빌 캠펠의 코치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코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내가 잘 아니까" 하지만 1년 후에는 코치를 받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 같은 인물도 코치가 필요한테 보통 경영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기고

섬 주민 삶이 우선 아닌가



전상봉 여수 직포마을 어촌계장

필자는 여수시 남면 금오도 직포마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어민이다. 조상대대로 농사도 짓고 바다에서 고기도 잡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지정해 준 농어촌민박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어촌계장을 맡아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 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동안 마을 숙원 사업이었던 방파제 연장, 기반 시설과 편의 시설의 설치 등에 나설 수 있게 돼 마을 주민들과 함께 희망에 부풀어 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걱정이 앞선다. 직포마을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내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기반

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어렵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까지 국립공원 내에 편입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금오도 주민들이 겪은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필자는 창고, 막사 등 건축물을 짓는 영농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네 차례 국립공원 직원들에게 적발돼 10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낸 바 있다. 없는 형편에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던 행위에 대해 단속을 당하고 막대한 벌금까지 내다 보니 의욕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울고 싶은 심정이다.

사실 국립공원 지정 당시인 1981년은 전두환의 군부 독재 시절로, 국립공원의 지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주민들의 엉터리 동의 과정을 거쳤다는 것은 금오도 주민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다. 그 이후 사유지에 작은 건물 건축 인허가도 받을 수 없어 40년 동안 주민들은 거의 그대로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섬이 전남의 관광 자원이며, 특

히 금오도를 찾는 외지인들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좁고 노후돼 주민들은 물론 외지인들도 불만이 높이고 있다. 귀어·귀촌을 받으려 해도 이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없으니 이 역시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부 외지 방문객들의 경우 금오도가 국립공원에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 비렁길 주변의 개인 사유 농지를 개척하거나 표도를 제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국립공원 직원들은 이 같은 민원을 근거로 주민들을 형사 고발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자신의 삶의 질 향상이나 소득 증진을 위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벌금만 늘어나니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할 것이다. 필자 역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벌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생각도 들었다.

아름다운 금오도를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취지에는 분명히 동의한다. 필

자만이 아니라 금오도의 주민이라면 누구도 우리의 자산이기도 한 금오도의 자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만 금오도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고통을 받거나 결국 떠나게 해서 안되며, 금오도를 찾는 외지인들이 만족할 정도 수준의 시설은 설치돼야 한다. 4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과 원칙도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한 것이며, 자연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다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사무소 등 관련 기관 역시 보호해야 할 자연과 환경만큼 그 안에서 몇 대를 이어오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감안한 행정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 금오도는 엄연히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다. 이들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며 기본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의 현실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社說

학교 방역망 사수... 교사들이 지쳐간다

교사들이 지쳐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때문이다. 사그라드는데가 싶던 코로나 지역 감염은 슬며시 고개를 드러내 다시 대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에서도 최근 며칠 사이에 십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학교 방역망이 뚫린다면 견잡을 수 없는 사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교사들이 분투하고 있다. 일선 교사들은 '등교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병행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전 과정의 방역에 참여하고 있다. 종전에 비해 업무량이 3~4배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교사의 안전·건강이 한계점에 이르러 자칫 학교 방역망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장 교사들은 학사 일정을 진행하면서도 방역 최일선 담당자로 업무를 수행하느라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고 있다. 출근해서는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부터 하교한 뒤까지 방역 작

업에 온 힘을 쏟는다. 퇴근해서도 밤새워 원격수업 영상을 만드는 피곤한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학생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3만 9182명의 교육활동 지원 인력을 학교에 배치한 상태다. 광주에서는 보건지킴이 813명을 포함해 돌봄 명예교사와 특기 프로그램 강사 등 1500여 명이 교육활동 지원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광주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가 620여 개임을 감안하면 학교당 배치되는 인원은 고작 두 명꼴이래며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데다 업무 분장에 혼선도 있어 운용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소연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학교 운영과 학교 구성원 안전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내몰린 교사들이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휴식권 보장 등 체계적인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반환점 맞은 민선7기 힘찬 도약 준비해야

민선 7기가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고 올부터 후반기로 접어든다. 임기환환점을 눈여겨보아야 할 시기다. 김기현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그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 시장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안착시킨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좌초 위기를 극복하고 정하게 되면 되려 공격받게 된다. 미션이나 비전에 관한 질문을 통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답을 할 수 있는 경영자가 얼마나 될까? 무엇을 하고(know what) 어떻게 하는지(know how)는 잘 알고 있으면서, 왜 그 일을 하는지(know why)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은 경영자들이 의외로 많다. 자신만의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는 CEO는 그 미션에 공감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갖게 한다. 에릭 슈미트가 구글 CEO로 취임해서 빌 캠펠의 코치를 받으라고 권유받았을 때 이렇게 말한 바 있다. "나는 코치가 필요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할지는 내가 잘 아니까" 하지만 1년 후에는 코치를 받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에릭 슈미트 같은 인물도 코치가 필요한테 보통 경영자는 더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6대 프로젝트를 새천년 비전으로 제시하며 침체되고 쇠락하는 전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한 올해 국고 예산 7조 원, 전남 예산 9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예산 확보와 경전선 순천-광주 구간 전철화, 남해안철도 보성-목포 신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양 시도의 이 같은 성과는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미래 산업 기반을 공고히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과제 도 산적해 있다. 무엇보다 전반기에 제시한 미래 비전들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 등 시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아울러 광주의 군 공항 이전이나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전남의 30년 숙원인 의대 설립, 흑산공항 건설 등 현안 해결에도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이를 위해 시도는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상생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남편의 대나무 숲은 어디든지 마을과 잘 어울려져 있다. 어린 시절을 보낸 시골집 뒤쪽 역시 온통 대밭이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대밭을 담양에서 볼 수 있었다. 맹종죽(孟宗竹)이었다. 잔가지 없이 매끈하게 쪽쪽 뻗은 몸체와 허벅지만 한 굵기가 인상적이었다. 비탈이 아닌 평지에 자리한 대밭에는 대나무 외에도 '망태버섯'과 대나무 이슬을 먹고 자란다는 '죽로차'(竹露茶)가 자라고 있었다.

예로부터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대나무와 한평생을 같이했다. 새 생명이 태어나면 땃줄을 대나무 줄로 잘랐다. 전통 혼례 상에는 길상(壽祥)의 상징으로 대나무 잎 상에(竹杖)를 짚었다. 대나무는 생활의 반려자이기도 했다. 소쿠리와 채반 등 실용 생활용품이 그것이다. 여름이면 죽부인과 합죽선으로 무더위를 물리치기도 했다.

사군자(四君子: 梅蘭菊竹)와 세한삼우(歲寒三友: 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 그리고 십장생(十長生) 가운데 하나인 대나무는 많은 문인화와 문학 작품 속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쓰였다. 요즘 김

달 C이에도 '늘 푸르고' '대쪽같은' 대나무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 예디슨이 발명한 백열전구 필라멘트나 찰리 채플린의 지팡이가 대나무 소재라는 것도 이채롭다.

'대나무의 고장'으로 불린 담양은 죽제품의 일변지였다. 일제강점기에 혼수 필수품이었던 담양산 찻빛은 멀리 만주국까지도 팔려 나갔다. 1980년대만 해도 담양을 담주리 전편에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죽물시장이 섰다. 1990년대 들어 담양 대숲은 새로운 생태 관광자원으로 자리 잡는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거두셔도 좋습니다"라는 휴대천화 CF의 배경 또한 담양 금성면 배상에는 길상(壽祥)의 상징으로 대나무 잎 상에(竹杖)를 짚었다. 대나무는 생활의 반려자이기도 했다. 소쿠리와 채반 등 실용 생활용품이 그것이다. 여름이면 죽부인과 합죽선으로 무더위를 물리치기도 했다.

사군자(四君子: 梅蘭菊竹)와 세한삼우(歲寒三友: 소나무·대나무·매화나무) 그리고 십장생(十長生) 가운데 하나인 대나무는 많은 문인화와 문학 작품 속에서 지조와 절개의 상징으로 쓰였다. 요즘 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국문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